

일제시대 官立 高等教育施設의 配置類型 모델에 관한 연구

李榮漢

([주]아키프랜 종합건축사사무소)

I. 서론

일제시대의 건축연구에 있어서 고등교육시설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문학교, 대학으로 구성되는 고등교육시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으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다른 건물타입에 비해 넓은 대지 조건과 그에 따른 건축법 규제에 자유롭게 대처하여 그 시대정신이나 건축가의 의지를 비교적 자유로이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종합적인 건축계획과정—입지선정, 배치계획, 평면 및 형태계획을 중요하게 다루며, 캠퍼스 내에 업무시설(본관), 교육시설(교사동), 연구시설(실험동),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문화시설(강당), 주거시설(기숙사, 관사) 등 여러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가지는 고등교육시설의 분석은 곧 그 시대 건축이해의 객관적인 방편이며, 이것이 일제시대 건축연구에 있어서 고등교육시설을 선정한 이유이다.

일제시대에 건축된 학교를 설립주체에 의하여 분류하면 일제의 관학, 일본인의 사학, 한국인의 사학, 기독교 사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건축된 일제의 관학을 대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일제의 관학 고등교육기관은 한국인의 사학이나 기독교의 사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정책은 “한민족의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시행한다”¹⁾는 원칙하에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에 인색하였으며, 몇몇 고등교육기관은 한국인의 교육과는 거리가 먼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학교였다. 이들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수를 국적별로 비교하여 보면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5%내외이며, 일본인이 75%를 차지하고 있었다.²⁾ 결국 이 학교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을 유지 옹호하고 일본인을 위한 기관으로서, 단지 한국 땅에 캠퍼스를 건설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의 캠퍼스 배치가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유형은 무엇을 모델로 하여 개획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 1) 김재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7, p. 42-43
- 2) 이영한, 한국고등교육시설에 있어서 공간유형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p. 29-31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실질적으로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시작하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로 하고, 지리적인 범위는 식민지 지배의 총본산이었던 경성부(구한말에는 한성부라 칭함)에 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일제의 고등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건축, 더 나아가서 일제 식민지건축의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II. 예비적 고찰

1. 일제의 교육정책과 각 학교의 설립

식민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세운 일제의 교육목적은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 제1장 제2조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즉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한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라는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는 일본의 식민지교육 정책의 근간이었으며, 皇國臣民化教育, 즉 天皇에 충량한 국민의 육성, 궁극적으로는 '同化'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05년 일제가 조선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1945년 패망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강화되었다.

1) 통감부 및 제1조선교육령기

1905년 일제의 학부고문 시대하라는 『한국교육개량안』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민족적인 관공립학교교육을 점차로 일제의 침략정책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였다. 그후 통감 이또 히로부미의 지휘아래 1906년 하반기부터 구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던 관공립학교를 개편하기 위한 각종 학교령과 학교규칙들을 제정 공포하였다. 무단식민통치 교육을 법제화한 조선교육령에 기초하여 1911년 10월 총독부령으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를 기본으로 하는 식민지교육체계를 수립한다. 1915년에는 전문학교 규칙을 공포한다. 이 통감부 및 제1조선교육령기에 각 학교의 개편 및 설립이 이루어져 일제시대 교육기관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한다.

1895년 법관양성소 관제에 의해서 사법관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관양성소는 1909년 법학교로, 1911년에는 京城傳修學校로 개편되며, 1916년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승격된다.

1899년 상공학교관제로 설립된 상공학교는 1904년 농상공학교로 개편된다. 이 학교는 분야별로 분리되어, 농과는 1906년 농림학교관제에 의하여 농림학교로 개편되며 1918년에는 수원농림전문학교로 된다. 공과는 1907년 관립 공업전습소교칙에 의거하여 관립 工業傳習所로 설립된다. 이 학교는 1912년 조선총독부 중앙실험소 부설 공업전습소로 개편되며, 1916년에는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승격된다.

1885년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국립병원으로서 광혜원은 의료행위와 서양의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899년 의료 및 교육기능을 분리하여, 교육을 전담하는 관립 의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이 학교는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로 개편되고 1910년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바뀐다. 이 학교는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된다.

2) 제2차 조선교육령기

일제는 전민족적인 3.1운동을 계기로 교육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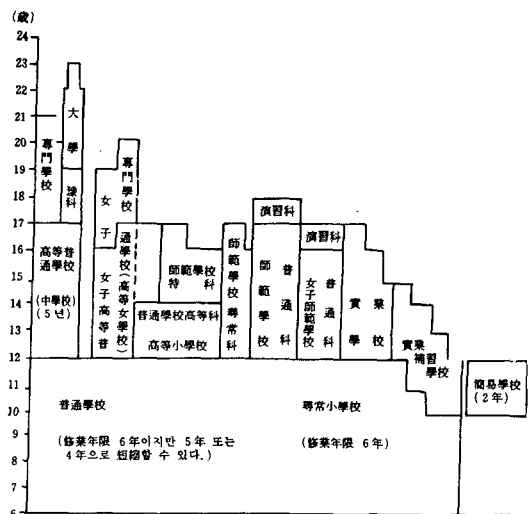


그림1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학교 제도

에서 식민지교육정책을 개편하여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개정 공포한다. 이 교육령에서 수립한 교육체계는 6년제 보통학교, 5년제 고등보통학교, 3~5년제 여자고등보통학교, 5년제 대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2조에서는 조선에서 대학교육기관 설립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로 인하여 새로이 대학이 설립된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관계가 공포되었으며, 이 대학의 관리운영 및 학제는 일본 본토에 있는 제국대학령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개교되고 1926년에 법문학부, 의학부가 개교된다.

1922년에는 경성공업전문학교와 수원농림전문학교는 각각 경성고등공업전문학교와 수원고등농림전문학교로 승격, 개편된다.

또한 1922년 사립 경성상업전문학교는 관립 경성고등상업전문학교로 바뀐다. 이 학교는 1908년 사립 동경동양협회전문학교의 경성분교로 개교하였으며, 1915년에는 東洋協會拓殖專門學校로 개칭되고 1918년에는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로 독립하였다.

3) 제3차 조선교육령기

일제는 태평양전쟁의 발발 등 세계대전에 대처하고자 1938년 제3차 조선교육을 공포하여 내선 일체의 교육통치이념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목적을 전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연구로 하였다.

1939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 광산학과를 모체로 설립된 경성광업전문학교는 한반도의 광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41년에는 경성제대에 이공학부를 설치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무기개발 및 약재개발을 추진하였다.

2. 학교시설 관련 건축조직의 특성

탁지부 건축소, 총독부 영선과, 건축과, 영선계는 관에서 발주하는 고등교육시설의 마스터플랜, 설계, 감독을 행하였으며, 그 재산도 관리하였다. 이들 관청의 설계조직특성은 그들이 관여

한 학교시설에 충실히 반영되며, 학교시설의 특성은 이들 설계조직의 특성을 통하여 조명될 수 있겠다. 이 관 설계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감부시기에 있어서 탁지부 건축소는 일제 대장성 건축부의 영향하에 있었다. 건축소에는 정식직원이 있었던 반면에 많은 일본 대장성 임시건축부 소속의 기술자가 파견근무하였다. 이로서 관 설계조직은 설립당시부터 일본제국주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된다.

둘째로, 일제 통치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영선과나 영선계는 총독직속의 관방 회계과에 소속되었다. 이러한 소속관서의 성격은 이들 건축조직이 철저하게 조선통치의 핵심인 총독의 통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로, 총독부내 직원의 직제는 철저한 계급적인 위계로 이루어졌다.³⁾ 기사-기수-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직은 계급적인 집단이었으며, 이 계급의식은 같은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출신학교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계급적 특징은 조직내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박탈하여 보수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을 것이며, 기사들의 건축적인 사고가 절대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새로운 근대적 건축관을 수용하는 진보적인 건축(progressive architecture)이 아니라 견실하고 보수적인 건물(conservative building)을 가능케 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로, 이 건축조직의 업무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감독과 국유재산의 관리로 되어 있었다. 이는 이 조직의 성격이 전문적인 건축설계조직이 아니며 종합적인 시설 관리조직이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리조직속의 건축설계라는 한계, 즉 건축설계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인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제시대를 통털어서 고등교육시설이 가장 왕

3) 조선총독부 내의 관리직제는 新任, 勅任, 奉任, 判任으로 구분되며, 기술적으로는 봉임에는 技師, 관임에는 技手가 해당되었으며, 밑에 屬託이 있었다. 여기에서 봉임이상은 일본정부에 의해서 임명됐으며, 관임이하는 총독부에서 임명한다.

성하게 건축된 시기는 제2 조선교육령기이며, 그 중에서도 20년대이다. 이 시기에 이 건축조직에서 학교건축설계를 주도한 기사는 岩槻善之⁴⁾이다. 그는 경성제대의 대표적인 건물인 경성제대 본부, 의학부, 법문학부 본부건물을 설계하였으며, 경성고공 건축과에서 건축계획과 시공학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시공분야 중에서 그는 아스팔트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특히 침입도와 용융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가 관여한 건물은 아스팔트방수로 지붕방수를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건축가가 시공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짐으로서 견실한 건물을 설계하게 하였을 것이다.

Ⅲ. 각 시기의 배치현황 분석

1. 통감부 및 제1차 조선교육령기

1) 경성의학전문학교 캠퍼스

경성의학교는 1899년 寬仁坊勳洞에 있던 혁신관료 김홍집의 저택에서 개교하였으며, 1907년 대한의원교육부로 개편되면서 黃橋通 마등산 의원내과 이전한다. 이 곳 대한의원 남서측 기슭에 1909년 의학교 교사를 신축한다. 이 학교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고 1917년 총독부병원 남측의 동승동에 교사동을 신축하여 규모를 갖춘 캠퍼스를 형성하며 해방될때까지 사용된다. 이 교사동은 소규모 건물군으로 독립적으로 규모를 갖춘 캠퍼스배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1차 조선교육령기의 대표적인 캠퍼스로 볼 수 있다.

이 캠퍼스는 동경사면의 지형을 평지로 조성하여 형성되었다. 캠퍼스의 진입은 지금의 대학로로부터 들어오는 정문이 캠퍼스 남동모퉁이에 있었으며, 총독부병원과 통하는 문이 캠퍼스의 후

면에 있어서 병원과의 연계를 편리하게 하였다. 건물의 구성은 강당, 생도공소, 교사동, 실험실동, 변소등이 있었으며 본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독부병원에서 본관의 기능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 이 캠퍼스는 자기 완결적인 독자적 캠퍼스로 볼 수는 없으나 그 시기의 캠퍼스 배치의 원리를 충실히 고수하고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먼저 운동장이 있고 그 뒤에 교사동이 위치한다. 교사동의 전면 중앙에는 강당이 있으며 그 좌우에 교사가 양립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교사와 실험동이 위치한다. 각 건물들은 남하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으며, 좌우대칭의 정확한 직교좌표축상에 배치되고 있다.

2) 수원농림전문학교 캠퍼스

농상공학교는 1904년 壽進坊 濟用監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 분리되면서 1906년 농림학교가 수원에서 개교된다. 이 학교는 학교의 승격과 규모의 확장에 따라 초기 캠퍼스 주변으로 확장하면서 해방될 때까지 그 곳에서 있게 된다. 이 캠퍼스는, 제1차 교육령기의 캠퍼스들이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캠퍼스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에 반하여, 전형적인 캠퍼스의 규모와 골격을 형성하여 제1차 교육령기 캠퍼스의 전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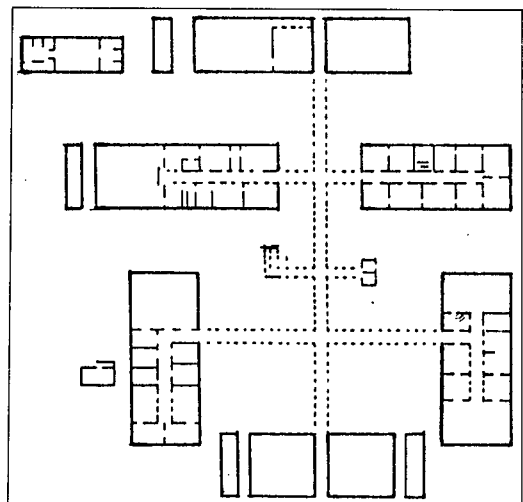


그림2 경성의학전문학교 동승동캠퍼스 배치도

4) 그는 1921년 동경제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용산 공병대에서 기수로 근무하다가 1922년 총독부기사로 임명된다. 그는 총독부기사로 10년간 근무하다가 총독부병원에서 죽는다.

이 캠퍼스는 1906년 교사, 기숙사, 관사를 준공한다. 지형은 평탄면으로 되어 있으며 배치의 향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었다. 건물의 구성은 교사동, 기숙사 2동, 식당, 변소, 욕실, 숙직실 및 小使室, 관사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배치 순서는 정문 바로 북측에 남향의 교사동(A)이 있고, 그 후면에 숙직실(E)과 기숙사동(B, C)이 있으며, 식당동(D), 변소동과 욕실동이 연이어 배치되어 있다. 전면의 정문에서 정북방에 교사동의 주출입구가 있으며, 정문과 교사동의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남북축상의 중간지점에 원형평면의 녹지가 있으며 그 주위를 에워싸며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다. 본관기능을 가진 교사동 정중앙에서 등거리 떨어진 후면에서 두개의 복도가 북측으로 뻗어가며 서측 복도에는 숙직실이 연결되

며, 동측의 복도에는 기숙사동이 위치한다. 기숙사동 후면에는 기숙사동과 평행하게 복도가 나있으며, 변소, 욕실, 식당동이 차례로 연결되어 있다. 이 학교건물의 후면에는 울타리가 동서로 쳐져 있으며, 울타리를 넘어서 관사동이 단독 주택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1907~12년에 걸쳐서 도서관, 기숙사, 강당, 계단교실이 증축되며 기숙사(F)는 기존의 기숙사동 후면에 기존의 기숙사동과 같은 형태로 배치되며, 그외의 실들은 교사동의 좌우로 확장하여 배치된다. 그리하여 교사동은 일자형에서 H자형과 유사한 평면이 된다. 1913~18년에 기숙사 2동(G)이 추가로 건축되면서, 1918년에 기숙사 1동(K)은 기존 캠퍼스의 서측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된다. 1921년에는 교사동의 서북측에 동식물실험실(I)과 화학실험실(J)이 신축된다.

이 1906년의 캠퍼스는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축상에 진입로-원형녹지-교사-기숙사-관사를 배치하며 정확한 직교좌표축상에 각건물을 배치하였다. 또 각 건물들은 복도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었다. 이러한 배치를 골격은 10년대에 성장하면서 그대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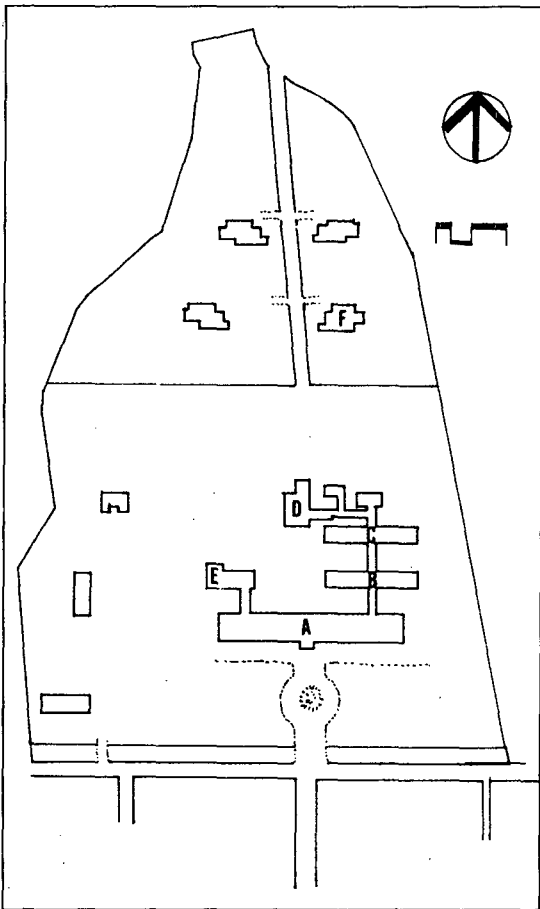


그림 3 수원농업학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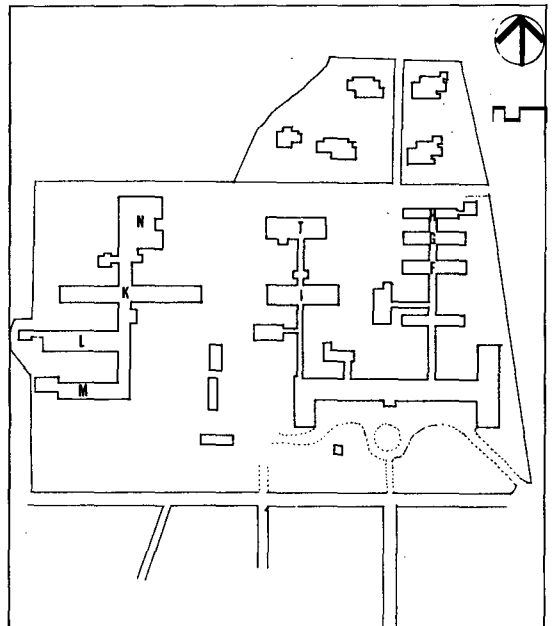


그림 4 수원농림전문학교 배치도

2. 제2차 조선교육령기

1) 경성제대 예과 캠퍼스

이 학교는 1922년 동대문외에 있는 청량리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청량리 永徽園입구 동측에 위치하며 송림이 울창하고 청량사 등 절이 있어 피서지였다. 이 곳에는 1899년부터 종로통에서 교외 전차(동대문~청량리)가 운행되었으며 경원선의 출발지로서 교통이 편리하였다고 한다.⁵⁾

캠퍼스의 전면부에 본관, 교사동, 生徒控所, 강당을 배치하고 그 후면에 기숙사와 관사동을 배치한다. 운동장은 캠퍼스의 우측부에 위치시켰다. 정문은 전면도로로부터 안으로 들어간 孤形으로 되어 있으며, 정문과 마주보는 곳에 본관 주출입구를 위치시켰다. 정문과 주출입구 축상에서 주출입구 가까이에 원형의 녹지를 조성하였으며 축상의 왼편 수위실 뒷쪽에 奉安所를 위치시켰다. 본관(A)의 뒷쪽에는 생도공소(C)와 강당(B)의 건물을 본관 양측에 붙여서 지었으며 특별교실(D)을 T자형으로 하여 본관 중앙후면에 위치시켰다. 운동장의 뒤쪽에는 무도관(E)을 위치시키고, 기숙사(F)와 연결하여 식당동을 배치하였다. 1936년이 되면 대지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트랙, 체조장, 생도집회소를 건축한다.

이 캠퍼스는 1924년에 그 대부분이 형성되며, 1930년대 대지를 확보하면서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확장하지만 1924년에 형성된 골격을 보완하는 정도로 확장된다. 건물군의 배치는 공적인 건물인 본관, 도서관, 강당, 생도공소를 전면부에 위치시키고 중앙에는 교사동을, 후면에는 기숙사와 식당을 배치시킨다. 본관, 도서관, 강당, 생도공소 등 중요한 기능들을 캠퍼스의 중앙부에 하나의 건물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 건물은 좌우대칭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정문으로부터 중앙에 위치

한 본관까지의 공간은 엄격한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 이 공간은 완벽한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고 이 공간의 중간지점에 봉안소가 있어서 의식적인 공간성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캠퍼스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의 대표적 캠퍼스인 수원농림전문학교의 배치의 성격을 한층 강화한 캠퍼스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경성제대 의학부, 법문학부 캠퍼스

경성제대 신 캠퍼스의 부지로 노량진, 영등포, 청량리 등이 물망이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동승동과 연건동 일대로 결정되었다.⁶⁾ 이 캠퍼스가 건설되던 그 당시 부근 일대는 대부분 菜麻田이요, 종로 5가에 새로 개교한 대학까지는 발뚎 사이에 희미한 소로가 있었다. 법문학부는 이화동의 경성공업전문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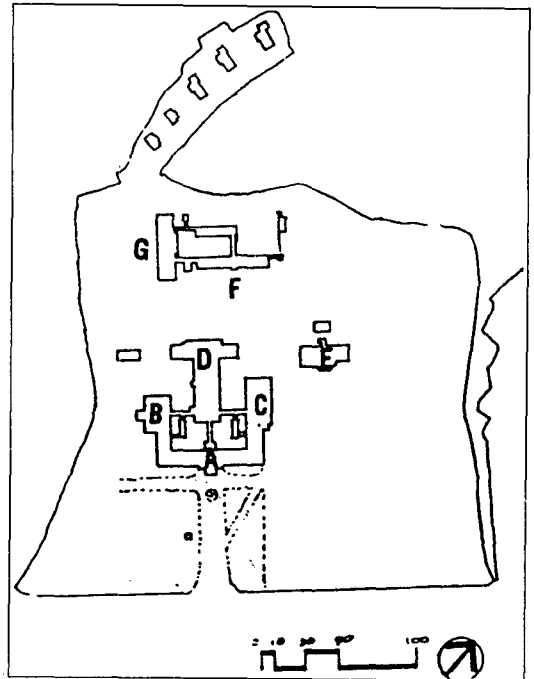


그림5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 캠퍼스의 배치도

5) 1895년 을미사변으로 사망한 명성황후의 묘인 흥릉이 이곳 청량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고종의 잦은 능행을 위하여 일찌기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가 개통되었으며, 1914년에는 경원선이 개통되어 청량리역은 동부 교통의 중심지였다.

6) 신 캠퍼스의 교지는 총독부의원 구내 연건동대지 66, 000평과 동승동쪽 민유지 25, 000평을 확보하였다.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 건축사, 8806, p. 56

부는 연건동 총독부병원 동쪽에 위치하여, 이 두 캠퍼스는 중앙에 남북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이 캠퍼스들은 1924년부터 동시에 건설된다.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서측에는 총독부병원과 연계하여 의학부가 자리 잡고 동측에는 법문학부가 자리잡는다. 최초의 배치계획도에 의하면 전면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건물들이 완전대칭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의학부, 법문학부 정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주 건물인 의학부 본관, 법문학부 본관, 도서관 및 연구실 그리고 본부건물이 서로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캠퍼스가 건설되는데, 시행과정에서 평면계획의 변경으로 약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법문학부는 기존에 있던 경기상업학교 건물(A)과 그 남측에 건축한 교사사(B)를 서로 복도로 연결하고 본부와 교사동으로 우선 사용한다. 의학부는 병리학교실과 의화학교실(I)을 1926년 완공하고 사용한다. 의학부와 법문학부 본관(H, C)은 도로측과 평행하게 위

치시키고, 두 건물의 중심축을 일치시킨다. 법문학부의 본관 좌측에는 도서관과 연구실(D)을 배치시키고, 우측에는 경성제대 본부(E)를 배치시킨다. 이로서 법문학부 본관 앞의 정원을 중심으로 하여 4개의 건물이 배치된다. 법문학부 본관 뒤에는 심리학교실(G)과 강당(F)이 위치하며, 의학부 본관 좌측에는 병리학교실, 의화학교실을 배치시킨다. 운동장은 법문학부 캠퍼스 북측에, 무도장(J)은 운동장 북쪽부분에 위치하며, 관사들은 법문학부 캠퍼스 동측의 駱山 기슭에 배치된다.

이들 캠퍼스는 별도의 기능을 가진 캠퍼스이고 그 중간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캠퍼스 개념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배치의 기준은 전면도로와 그 도로상의 정문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교축상에 각 건물이 배치되었다. 각 건물의 전면벽면선은 중앙 현관부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경성고등상업학교 캠퍼스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는 1907년 大和町에서 설립되며 1920년 사립 경성고상으로 승격되면서 승인2동으로 이전한다. 관립 경성고상은 1937년 종암동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하고 이전한다. 종암동 캠퍼스는 원래 경성여의전에 의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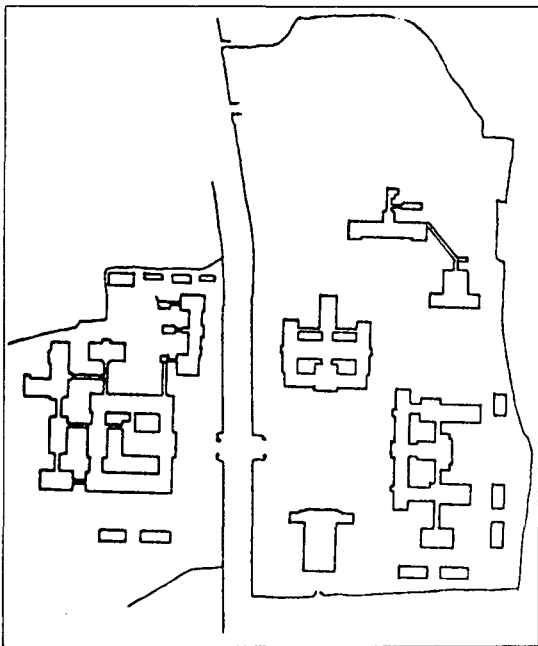


그림6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 캠퍼스의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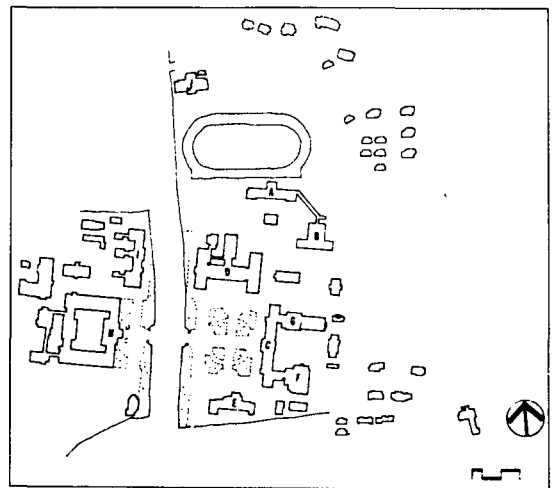


그림7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 배치도

건설된 신캠퍼스였으나, 이 두 학교는 캠퍼스를 서로 교환하였다.

경성고상 명륜동캠퍼스는 1919년에 건설되는데 東傾斜面 지형으로 이루어진다. 전면도로는 남북으로 향하고 있으며 건물배치는 동향으로 되어 있었다. 캠퍼스와 전면도로사이에 민간사유지가 있었으나 건물의 배치는 민간사유지나 대지형태에 관계없이 전면도로와의 관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배치는 중앙에 본관이 있으며, 그 북측에는 도서관이 별도로 위치하며, 본관 남측부에 강당을 배치하였다. 본관의 후면에는 본관과 평행하게 연무장을 위치시켰으며, 그 후면에 숙직실, 석탄고, 화장실 등을 위치시켰다.

1924년에 캠퍼스는 확장되는데 기존 캠퍼스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배치의 향은 정동향으로 되어 있으며, 신축 본관은 기존 본관과 축을 일치하고 있다.

경성고상 중앙동 캠퍼스는 남서향으로 배치되었다. 교사동을 북측에 운동장을 남측에, 그 사이에 교문을 위치시켰다. 본관은 E자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좌우에 강당과 도서관을 위치시켰다. 도서관은 남동향으로 길게 본관의 서측 전면에서 직각으로 배치되었으며, 본관의 진입은 도서관 전면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 캠퍼스는 본관, 강당, 도서관으로 에워싸여진 전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 건물은 비대칭적인 배치를 보여준다.

4) 경성법학전문학교 캠퍼스

법관양성소는 1895년 서대문밖 鑰洞에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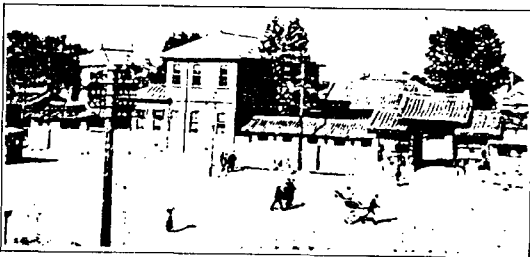


그림 8 1919년 광화문통에서 본 경성법전 광화문 캠퍼스 전경

되며 1903년에 광화문통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유동은 鑰店洞이라고도 하였으며 돈의문 바로 밖에 위치하며 그 주변에는 한성부가 있었다. 이곳은 지금의 서대문사거리 일대로 추정된다. 1903년에 한성부시대의 戶曹자리에서 再開所하며 광화문통 동쪽 현재 전기통신공사 자리로 추정된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37년 청량리로 이전하게 된다. 광화문캠퍼스는 경성부의 제일 중요한 도로인 광화문통에 접하고 있어서 도로의 확장으로 교지가 잘려나가고 교사가 비좁고 낡아서, 이 학교는 신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청량리캠퍼스는 현재 청량리중학교 자리이다.

광화문캠퍼스는 초기에는 조선시대 호조의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점차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캠퍼스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1919년에 광화문통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광화문통을 따라서 회랑건물이 있으며, 솟을삼문이 있었다. 본관은 광화문통에 접하여 남향으로 위치하였다. 본관의 동측 전면에는 연무장, 교사, 강당이 복도를 따라서 연이어져 있으며, 본관과 함께 중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전통적인 한옥배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캠퍼스는 1920년대 후반기에 본관을 교지의 북측과 동측에 건물들을 연이어 배치하여 하나의 외부 공간을 형성한다. 즉 이전의 캠퍼스에서는 본관의 전면과 후면에 마당이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20년대 후반기에는 하나의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 변화를 보여준다.

경성법전 청량리캠퍼스는 동경사면에 입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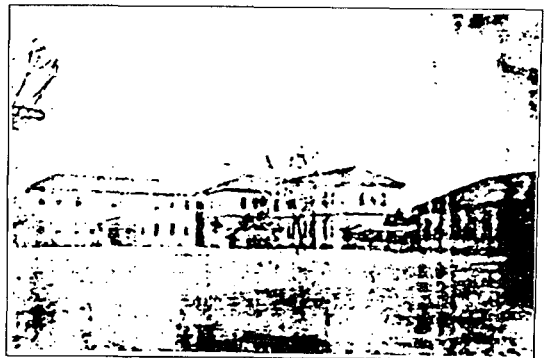


그림 9 1920년대 후반기 경성법전 광화문캠퍼스 전경

있으며 남동향으로 배치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진입은 대지의 동측에서 측면진입하도록 되어있다. 각 건물의 향은 본관과 동일하게 되어있으나, 본관으로 접근시 본관이 시각적인 정점이 되지 못하도록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계획은 그 시기 관학 캠퍼스의 일반적인 배치골격인 전면도로와의 관계, 직교좌표축 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3. 제3차 조선교육령기

1) 경성제대 이공학부 캠퍼스

이 학교는 1942년 경성부의 노해면 공릉리에 신 캠퍼스를 건설하고 이전한다. 이곳은 경성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전면에는 경춘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 캠퍼스는 1941년 제4호 관을 준공하며, 1942년에 제1, 2, 3호관을 준공한다. 이곳은 불암산 줄기가 남하하여 이루어진 구릉 서측기슭으로 배치의 향은 남서향으로 이루어졌다. 캠퍼스를 구성하는 네 건물은 복도의 연결이 없이 별동

으로 계획되며, 공장동인 제3호관을 제외한 모든 동이 향이 동일하다. 기존의 캠퍼스와는 달리 각 건물은 부속건물이 없이 집중형으로 한 건물내에 여러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2) 경성광업전문학교 캠퍼스

이 학교는 1939년 경성고공 광산학과를 사용하여 개교하며, 1943년에 경성부의 노해면 공릉리에 신 캠퍼스는 경성제대 이공학부 캠퍼스와 인접하고 있었다.

이 곳은 불암산 남측 구릉의 서사면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측에는 교사동을 서측에는 운동장을 배치하였다. 캠퍼스 건물은 정문-본관 진입로와 원형녹지-본관-교사동의 순으로 정남향으로 배치된다. 본관 좌우에는 강당 등, 2개의 건물이 양립하고 있으며, 본관 후면의 교사동은 ㄷ자형과 일자형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건물은 정문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오선상에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들 건물들은 모두 복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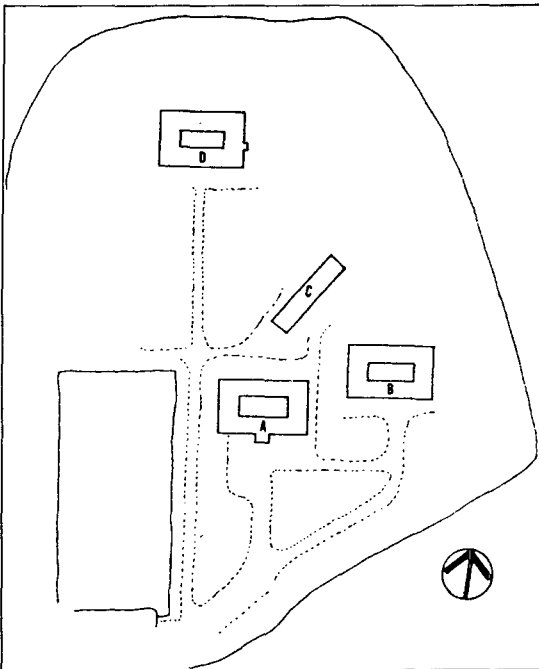


그림10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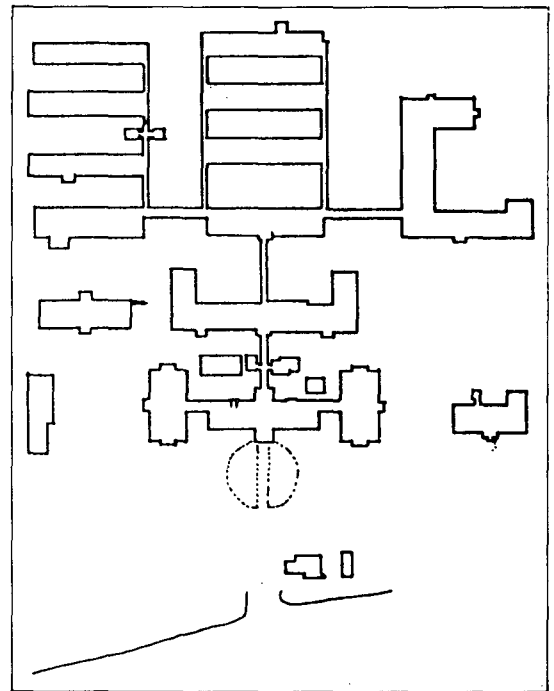


그림11 경성광전 공릉리캠퍼스

IV. 배치유형의 분석

1. 입지유형

1) 행정지리적 입지유형

일제시대 관립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3곳에 입지하게 되며, 통감부, 제1, 2, 3차 조선교육령기에 따라서 입지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통감부 및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동부에 해당했던 동승동, 이화동, 명륜동, 연건동에 주로 입지한다. 경성의학교는 1907년 연건동에 입지하게 된다. 경성의전은 캠퍼스의 확장과 함께 동승동에 새로운 교사동을 건설한다. 사립 경성고상은 1919년에 명륜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캠퍼스들이 건설된다. 1924년에 경성제대 예과캠퍼스가 청량리에 위치하며, 1937년에는 경성법전캠퍼스가 청량리역 북측에 입지하게 된다. 또한 경성고상·중앙동캠퍼스도 1937년에 완공되며, 청량리와 가까이 위치한다.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는 경성부의 노해면 공릉리에 대규모의 캠퍼스들이 건설된다.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1942년에 캠퍼스를 준공하며, 경성광전은 1943년에 캠퍼스를 준공하고 이전하게 된다.

2) 도시구조적 입지유형

일제시대의 조선통치는 철저하게 통치이념에 의해서 집행되며, 각 부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사진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통감부 및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경성부의 도시계획 기본원칙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도시계획의 골격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한성부의 주요기관들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일제의 식민지배의 핵심기관들이 입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성부의 상징적 장소의 일부가 일제의 핵심적인 교육기관들로 대체된다.

한성부는 북악산 기슭으로 하여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단을 배치하였는데, 일제는 경복궁 앞에는 조선총독부청사를, 종묘 주변에는 총독부의원 및 경성의학교,

공업전습소를, 사직단 앞 경희궁에는 경성제2고보를 입지시켰다. 또한 조선시대 학문의 총 본산인 성균관 전면에 여러 고등교육기관이나 시험소를 입지시킨다.

통감부 및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연건동 및 동승동, 명륜동에 입지하는 각 학교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입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만큼 이러한 통치이념이 철저하게 캠퍼스계획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는 그 이전에 형성된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을 기하는 발전기에 해당한다. 경성부의 도시계획에서도 기존 한성부의 도성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경성부 경계를 확장하게 된다. 이시기에 새로이 건설되는 캠퍼스는 이러한 신개발지에 위치한다. 청량리는 경성부 동부지역의 신개발 중심지였으며, 1936년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경성부에 편입된다.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서 교육은 전시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일제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학교의 교과를 개편하고 새로운 학교를 신설한다. 경성제대 이공학부와 경성광전은 각종 무기의 개발과 군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약제의 개발 및 광산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캠퍼스는 입지된다. 이들 학교는 경성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불암산 남측 기슭에 신캠퍼스를 건설하였으며, 그 주변에는 군수공장이 위치하고 있었다.⁷⁾ 이리하여 이지역은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유사기능의 시설을 인접배치하여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2. 배치의 향

일제 관학의 캠퍼스는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며 그 전면에 도로를 접하고 있었다. 이 캠퍼스의 배치향은 캠퍼스의 건설시기에 관계없이 특정한 방향을 선호하는 것보다 각 캠퍼스의 전면도로에

7) 총독부는 제2차 대전 발발로 필요한 지원병 훈련을 목적으로 육군지원병 제1훈련소를 공릉리에 세운다.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각 캠퍼스는 캠퍼스 환경을 고려한 방위인 남향보다는 전면도로의 향에 의해서 종속적인 방위를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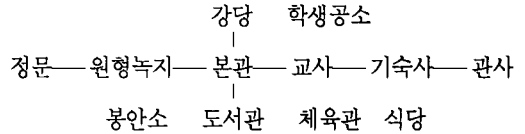
전체 10개 학교중에서 남향으로 배치된 캠퍼스는 3개 학교, 남동이나 남서향으로 배치된 학교는 3개의 학교이며 동향이나 서향으로 배치된 학교는 5개 학교이었다. 결국 방위에 대한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전면도로의 방위에 직교하는 방위로 배치된다.

3. 기능배치의 유형분석

일제 관학 캠퍼스는, 특수한 목적으로 계획된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캠퍼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정한 유형을 보여준다. 캠퍼스내에 수용되는 기능은 정문, 운동장, 원형녹지, 봉안소, 본관, 교사동, 도서관, 강당, 생도공소, 기숙사로 구성되며, 캠퍼스 주위에 관사동이 있었다. 이러한 기능은 캠퍼스의 규모나 캠퍼스의 건립시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수용되며, 이러한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수용한 캠퍼스는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원캠퍼스와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캠퍼스를 들 수 있다.

이 학교들은 학교의 기본적 기능인 학문의 기능과 이 기능을 보조하는 기숙사나 관사를 이웃하

여 배치하여 학문과 거주기능을 수용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능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로, 본관을 중심으로 각 기능을 배치하는 一元的인 공간구조를 보여준다.

둘째로, 학생들의 공적인 생활 중심기능인 학생공소, 식당을 후면에 배치하고, 전면에는 본관, 강당, 도서관 등 관리 및 학문중심의 기능을 배치하였다.

셋째로, 본관과 정문사이의 공간은 정적이고 의례적인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 공간에는 동적인 운동장을 배치하지 않고 녹지와 진입차도로 처리하였으며 특히, 천황의 사진을 보관하여 두는 봉안소를 배치하여 등교, 하교시에 의식

입지향	캠퍼스명	전면도로 향
남	수원농림학교 수원캠퍼스	남-북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연건동캠퍼스	"
	경성광전 공릉리캠퍼스	북서-동남
남동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캠퍼스	남서-북동
남서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캠퍼스	북서-동남
	경성고상 종암동캠퍼스	남서-북동
동	경성의전 동승동캠퍼스	남-북
	경성고상 명륜정캠퍼스	남-북
	경성제대 의학부 연건동캠퍼스	남-북
서	공업전습소 동승동캠퍼스	남-북
	경성제대 법문학부 동승동캠퍼스	남-북

표1 각 학교 캠퍼스의 배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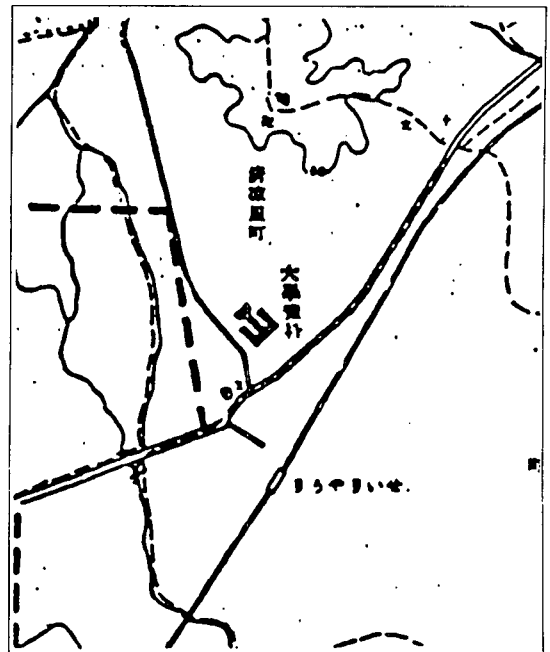


그림12 경성제대 예과캠퍼스의 배치향

을 갖도록 하였다.

넷째로, 기능은 전면외부공간(진입공간) - 본관 등 관리 및 교육공간-침식공간의 순으로 배치되어 엄격한 위계를 이룬다.

다섯째로, 캠퍼스 건물의 기능은 캠퍼스의 확장, 변화과정에서 타기능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초기 기능배치의 골격을 고수한다.

4. 배치축, 기준점 및 블록배치 유형

캠퍼스 배치의 기본축은 전면도로와 직교하여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제2차 조선교육령기 전반기에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

의 대표적인 캠퍼스는 경성제대 예과, 의학부, 법문학부 캠퍼스를 들 수 있다.

이 기본축의 기준점은 전면도로상의 정문으로 하였다. 즉, 캠퍼스는 정문을 기점으로 하여 전면도로와 직교하는 직선을 기본축으로 하여 배치되었다.

일제 관학캠퍼스는 직교좌표축을 기본으로 하여 각 블록을 배치한다. 경성법전 청량리캠퍼스와 같이 캠퍼스의 규모나 진입방식에 따라서 평행배치를 보여주는 캠퍼스도 있으나 비중있는 학교에서는 하나같이 직교좌표에 의해서 배치가 결정된다. 직교축상에서 x축에 각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y축상에는 복도를 배치하여, 각 건물들은 병렬형의 블록배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캠퍼스명	기능 배치 및 그 변화
수원농전 수원캠퍼스	정문 — 본관 — 기숙사, 식당 — 관사 ↓ 정문 — 본관 — 교사, 도서관 — 관사 봉안소 기숙사, 식당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캠퍼스	정문 — 본관 — 강당, 교사 — 기숙사 — 관사 ↓ 정문 — 본관 — 강당, 교사, 체육관 — 기숙사 — 관사 봉안사 도서관 운동장
경성제대 법문학부 동승동캠퍼스	도서관, 연구실 ↓ 정문 — 본관 — 교사, 강당 — 관사 ↓ 본부 운동장, 제조장
경성제대 의학부 연건동캠퍼스	정문 — 본관 — 교사 — 연구실 ↓ 학생공실
경성고상 명륜정캠퍼스	정문 — 운동장 — 본관 — 연무장 ↓ 도서관 ↓ 정문 — 운동장 — 본관 — 기숙사, 식당 ↓ 교사 연무장, 도서관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캠퍼스	정문 — 본관, 교사 ↓ 운동장
경성광전 공릉리캠퍼스	운동장 강당 ↓ 정문 — 본관 — 교사 ↓ 연무장

표2 각 학교 캠퍼스의 기능배치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캠퍼스가 별동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캠퍼스는 복도에 의해서 연결되며, 복도는 본관의 주현관으로부터 최후면 건물까지 관통하도록 하였다.

V. 일제 고등교육시설 배치유형의 모델규명

일본에서 제국대학의 캠퍼스는 문부성영선조직에서 설계하였으며, 1907년 제국대학관제가 개정되면서 동경제대와 경도제대에는 영선과와 건축부가 각각 설치되고 전임기사와 기수가 근무하였다. 이 관제 개정으로 양 대학의 영선공사는 문부성 영선조직의 소관에서 분리되어 제국대학 영선조직에서 일괄로 실시되었다.⁸⁾

문부성 영선조직에서는 명치 20년대 전반기에 고등중학교 5개교를 건설하였다. 이 5개의 고등중학교는 이후 고등교육시설의 실질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⁹⁾

고등중학교는 명치 19년에 공포된 중학교령에 의하여 전국을 5개구로 구분하여 각 구별로 1학교씩 설치되었다. 제1학교는 東京에, 제2학교는 仙台에, 제3학교는 京都에, 제4학교는 金澤에, 제5학교는 熊本에 설치되었다. 이들 학교는 명치 20년에서 26년 사이에 기공되고 완공되었다. 부지의 규모는 비교적 교외에 입지하고 있는 3교와 5교의 경우 5만평 전후이며, 1교는 31,000평, 2교는 27,000평 규모로 되어있다. 제일 작은 4교는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서 제일 작은 23,000평이었다. 이들 학교는 본관, 물리학 실험실, 화학 실험실, 강당, 생도공소, 우천체조장, 사무소, 예비과학실, 약학과교실, 기숙사동의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학교중에서 2교(仙台), 4교(金澤)를 분석

한다. 이들 학교의 부지규모는 20,000~30,000평으로 되어있고 4교의 경우 도심지에 근접하고 있어 일제시대 관학의 캠퍼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2교와 4교는 구성건물중에서 사무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어 전형적인 기능배치를 볼 수 있다.

제2교의 배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학교의 부지는 서북에서 남동으로 길게 이루어진 띠형으로 되어 있으며 정문은 남서면 중앙에 배치하였다. 부지의 중앙에는 교사동을 배치하고 남측에 기숙사동을, 북측에는 운동장을 배치하였다. 전체배치는 정문과 후문을 잇는 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 축상에 본관과 의학부교사동이 위치하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대칭으로 본관과 의학부교사동이 위치한다. 이 두 건물의 주출입구는 각각 정문과 후문의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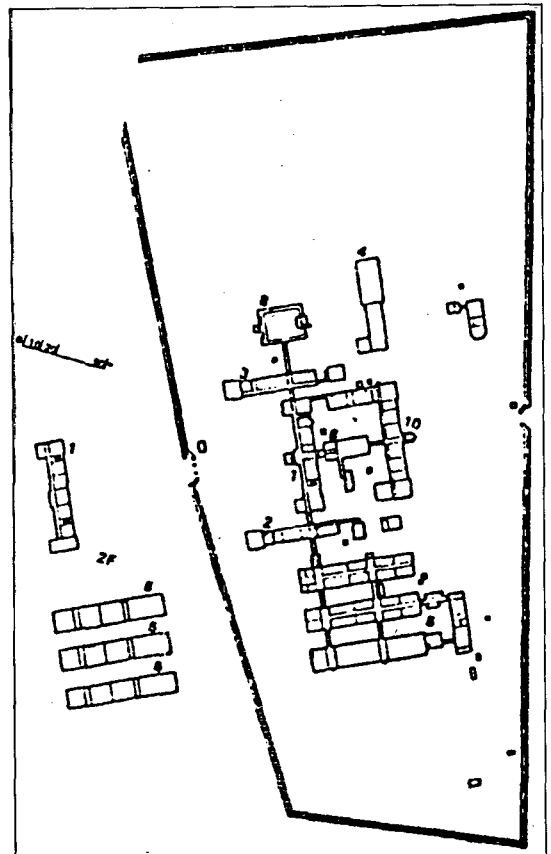


그림 13 일본 제2고등중학교 배치도

8) 宮本雅明, 明治期における 文部省 營繕組織の 構成と 沿革,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제292호, 昭和 55년 6월, p. 123

9) 宮本雅明, 明治期の 高等中學校に する 高等教育施設の 成立過程,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제304호, 1981년 6월, p. 137

에 위치한다. 본관건물의 좌우측에는 물리학실험동과 화학실험동을 위치시켰으며, 이 3건물은 정문과 후문을 잇는 기본축상에 정확히 좌우대칭되고 있다. 기숙사동은 이 기본축과 직교되는 축상에 일렬로 배치되었다. 이로서 전체배치는 정문과 후문을 잇는 기본축을 근간으로 하는 직교좌표축상에 배치되었으며, 각 건물은 복도에 의해서 연결되었다.

제4고등중학교는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이 학교는 정문을 남측에 그 전면에 본관을 배치하였다. 이 정문과 본관사이에는 좁은 외부공간을 조성하였다. 본관 뒤에 교사동을, 제일 후면부에 기숙사동을 그리고 운동장은 북측 부지에 배치한다.

이 학교는 전면의 대지경계선 상의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선에 수직선을 그어서 전체배치의 중심축으로 하였다. 이 축상에 전체건물을 관통하는 중심복도를 설치하고, 중심축과 직교하는 선상에 각 건물을 복도중 두어 전체 건물을 배치하는 직교좌표배치를 보여준다. 교사동과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는 기숙사동도 이 직교좌표축에

의해서 배치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같이 이들 고등중학교의 배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첫째로, 전체배치의 기준요소는 전면 대지경계선과 정문이다. 전체배치의 기준축인 종축은 전면 대지경계선 상에 정문이 위치하는 곳에서 대지경계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진다. 이 종축에 직교하는 횡축이 병렬로 설정되고 이 종축과 횡축상에 건물을 배치한다.

둘째로, 정문과 협소한 공지를 사이에 두고 본관이 위치하며, 그 뒤에 교사동을, 제일 후면에 기숙사, 식당을 배치한다. 그리고 후면 공지에 운동장을 설치하였다. 대지가 횡으로 긴 형태로 되어있어 종축상에 여러건물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는 정문을 기준으로하여 전면에는 본관을 배치하고, 그 부면에 교사동을 배치하며, 이들 건물의 좌우에 기숙사동과 운동장을 배치하였다.

셋째로, 배치의 종축과 제일 전면의 횡축이 만나는 곳에 본관의 주출입구를 설치하였으며, 종축과 횡축으로 이루어진 직교좌표상에 복도를 설치하여 전체 건물들이 직통하도록 하였다.

일본제국에서 19c말에 전국적인 규모로 건설된 고등중학교의 배치원칙이 그후 일본에서 건설된 고등교육시설의 배치모델이 되었으며, 이 원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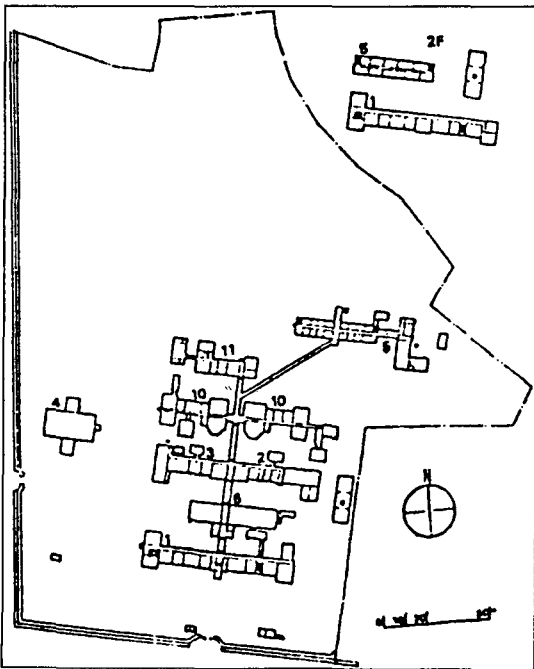


그림 14 일본 제4고등중학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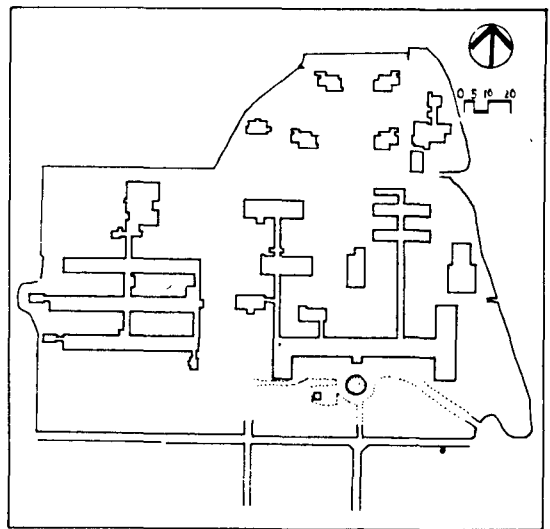


그림 15 수원고등농업학교 배치도

한반도에 건설된 관학 캠퍼스에 직수입된다.

일제 관학 고등교육시설은 배치의 기준인 배치축의 설정과 배치의 기점, 각기능의 위계적인 배치, 직교좌표축상의 건물배치, 본관 주출입구위치, 각 건물을 연결하는 직교하는 복도의 설치 등에서 일본에서 건설된 고등중학교의 배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일본 제2고등중학교의 배치도(그림-13)와 수원고등농업학교 캠퍼스 배치도(그림-15)를 보면 곧 이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이 두학교는 서로 비슷한 대지형태라는 틀속에서 동일한 배치원칙에 의해서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일제 관학캠퍼스의 배치유형과 일본의 고등중학교 배치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일제 관학캠퍼스는 일본 대학 캠퍼스의 모델인 5개의 고등중학교의 배치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명되었다.

VI. 결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고등교육의 실시를 우선 목적으로 하였다. 이 고등교육시설은 일본국 관청 건축조직의 건축이념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던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에 의해서 건축되었으며, 조선통치이념 및 정책에 의해서 입지 선정, 배치계획, 평면 및 형태계획을 결정하였다.

총독부의 조선통치는 그들의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교육분야에서는 통감부 시기의 한국교육개량안, 제1차 조선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집행된다. 통감부시기에는 구한말의 관학들이 친일적인 학교로 개편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 이시기의 대표적인 학교시설인 수원농림학교는 추후에 계획된 고등교육시설의 배치유형을 앞서 보여주고 있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는 통감부시기의 대표적인 학교들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개편되며, 고등교육체계의 기본틀이 정착되게 된다. 이 시기

의 대표적인 캠퍼스인 경성의학전문학교 동승동 캠퍼스는 비록 소규모로 되어있지만 캠퍼스 배치이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는 고등교육분야의 발전기로서 대학의 설립 및 기존 고등교육기관의 승격이 이루어진다. 이시기의 대표적인 캠퍼스인 경성제국대학 예과 청량리캠퍼스는 규모에 있어서나 배치유형에 있어서 이전의 캠퍼스 배치계획을 집대성하였다. 이시기 후반기인 30년대 후반기에 건설된 캠퍼스에서는 20년대 캠퍼스의 완성된 배치유형들이 일부 해제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차 교육령기에는 교육정책이 전시체제에 의해서 집행되며 이 목적에 의해서 이공계열의 대학을 설립한다.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캠퍼스는 보안유지 및 방어에 유리한 특이한 배치형태를 보여주며, 경성광전 공릉리캠퍼스는 일제가 추구한 캠퍼스의 배치유형을 마지막으로 구현한 캠퍼스였다.

이와같은 캠퍼스 배치가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인 배치유형은 상존하고 있다. 이들 캠퍼스는 우선 전면에 도로를 접하고 입지하며 이 도로의 영향을 받아 배치계획된다. 배치의 향은 일정한 방위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 전면도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각 기능별 배치에서는 정문-접근로, 봉안소 및 원형녹지-본관-교사동-기숙사-관사의 순으로 위계적인 배치를 보여주며, 특히 정문과 본관사이에는 봉안소를 설치하는 등 정적이고 의식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각 건물은 전면도로상의 정문을 기점으로 하여 전면도로와 수직인 기본축 종축과 이것에 직교하는 횡축에 의하여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이 직교좌표상에 복도를 설치하여 각 건물을 연결하였다.

이러한 배치유형은 19세기말 일본에서 건축된 고등중학교의 배치유형과 그 맥을 같이하며, 이 고등중학교 배치유형이 그후에 건축된 일본국 고등교육시설의 배치모델이 된 것과 같이, 일제시대 한국에서 건축된 관립 고등교육시설의 배치모델이었다.

참고문헌

1. 金永上, 서울 600年, 韓國日報社, 1990
2. 金雲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박영사, 1988
3. 金在祐, 朝鮮總督府의 教育政策에 관한 分析的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87
4. 金晶東, 朝鮮近代建築의 再照明 (1)~(15) 건축사, 1987. 5-1988. 2
5. 孫禎陸, 日帝強點期 都市計劃研究, 일지사, 1990
6. 李光魯外, 近代韓國 初中等學校의 建築類型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1987. 8
7. 李榮漢, 韓國 高等教育施設에 있어서 空間類型의 變遷過程과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박사논문, 1991.
8. 朝鮮建築會, 朝鮮と 建築, 第4집 제1호-제21집 제11호
9. 宮本雅明, 明治期における 文部省 營繕組織의 構成と 沿革,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제292호, 1980
10. 宮本雅明, 明治 中期의 高等中學校に 入る 高等教育施設의 成立過程,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제304호, 1981, 6.
11. 京城高等工業學校一覽, 1924, 33, 34
12. 京城高等商業學校一覽, 1923, 26, 27
13.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 1923, 25, 26
14.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1924, 26, 27, 35
15. 京城帝大一覽, 1926, 27, 37, 42, 43
16. 京城帝大 豫科一覽, 1924, 27
17. 水原高等農林學校一覽, 1923, 30, 31, 34, 36

A Study on the Model of Site Planning Type of Higher Education Facilities Planned by Colonial Government of the Chosun Period during 1905~1945

Lee, Young Han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ype of campus site plan constructed by Chosun colonial government in Japanese period and then the model of the type being the basis on the campus plan.

As a result of analysis to the type of function allocation, main axis and reference point, block plan of five high schools constructed in Mid-Meiji Era in Japan and the campuses in Japanese period, both were composed of same basic types.

I make clear that the model of the campus site plan in Japanese period was the site plan of five high schools in Japan, as that of higher education facilities in Japan was.